

안양·군포·의왕·과천 개인택시 불자

연합회로 신행·포교 '뽕~뽕'

안양·군포·의왕·과천의 개인택시 불자들이 연합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포교활동에 나선다.

이들 4개 시 개인택시불자들은 내년 1월 초 의왕 용화사에서 첫 공동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4개 시 개인택시불자연합회는 군포시 금정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2월 7일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4개 시 개인택시조합장 등 100여 명이 참석, 각 지역의 택시조합이 불자연합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4개 시 개인택시불자연합회는 첫 공동법회 전까지 집행부를 구성한 뒤 세부 논의를 거쳐 활동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인택시불자연합회가 결성된 것은 서로 인접해 있는 4개 시 개인택시 불자들이 연합해 활동할 경우 포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연합회 활동을 통해 각기 내부 조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사실 안양을 제외한 3개 지역

의 개인택시불자회는 인원이 적어 불자회가 구성돼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연합회 결성은 지역 포교와 불자단체 활성화라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합회는 첫째 사업으로 공동법회, 봉사활동, 성지순례 등을 실시한다.

'공부하는 신행단체' 목표로

공동법회·봉사활동·성지순례

공동법회는 연합회 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매월 첫째 월요일 의왕 용화사에서 진행하며, 봉사활동은 각 지역별로 활동을 하되 불우이웃돕기나 어른신 나들이 등 규모가 큰 행사는 함께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지순례는 내년 봄 첫 순례를 시작으로 매년 2-3차례 불행한다.

특히, 봉사활동의 경우는 안양 개인택시불자회만 진행해왔던 데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불교 이

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연합회는 기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연합회가 단순히 조직연합 차원이 아닌 '공부하는 신행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합회 인원은 안양 56명, 군포 31명, 의왕 11명, 과천 11명 등 모두 109명. 이들 전 회원은 2년 안에 기초교리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신입회원 가입원서에는 기초교리 수강을 아예 의무조항으로 명시해 놓았다.

또 연합회 사무실을 바탕으로 꾸며 언제든지 와서 참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서도 비치해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신영전 안양개인택시불자회장은 "말로만 '달리는 법당'이니 '거리의 포교사'니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고 불교를 생활화하겠다는 것이 연합회를 구성한 기본 취지"라며 "스스로 모범을 보이으로써 실천불교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fan@buddhapia.com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동물위령제 봉행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 인간의 생명을 위해 동물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곳. 생(生)과 사(死)의 아이러니가 공존하는 병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천도하기 위한 법회가 열렸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원장 이석현)은 12월 14일 병원 5층 법당에서 '동물위령제'를 봉행했다. 일산불교병원 지도법사 증제 스님과 이명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한 위령제는 정흔 낭독과 위령제단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위령제에서 지도법사 증제 스님은 "사람이나 동물 모두 생명의 차

이는 없으며, 평등하고 존엄해야 한다"하며 "동물위령제는 인류의 복지와 보건을 위해 실험실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영가를 위해 명복을 기리는 제사"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의과학연구소(소장 이애영)는 동물을 희생시킬 때 동통이나 고통 없이 급속한 무의식 상태에서 사망을 유발하는 안락사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불교복지와 나눔' 포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장 최은)은 12월 21일 하림각에서 '불교사회복지와 나눔'을 주제로 제4차 불교사회복지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불교사회복지 후원모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앙승가대 포교사

회화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한국 JTS 자원개발부 김예경 부장이 '한국 JTS 거리모금 캠페인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교육' 방안을 아름다운재단 국제협력연구팀 서현진 팀장이 특강으로 진행했다.

김 교수는 '불교사회복지 후원모금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에 대상으로 한 후원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전개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모금 기획 전문가 양성 △분명한 목적 수립 △복지서비스 시설 및 기관, 클라이언트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불교계에서도 공동모금회와 같은 모금 조직을 설립하고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모금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비 기자

한번 클릭! 불교자료 '한눈에'

동국대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가동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인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을 한글로 입력하고 검색했다. 화면 왼쪽에 불교전서(4권), 한글대장경(0권)이라는 창이 떴다. 다시 불교전서(4권)를 클릭하니 <금강반야바라밀경> 상(1권),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1권), <역산집>(1권), <추파집>(1권)이 검색됐다. 그 중 <금강반야바라밀경> 상(1권)을 클릭하자 197쪽이 나오고, 다시 197쪽을 클릭하니 저본으로 사용된 원문 이미지와 한문텍스트가 동시에 나왔다. 한문텍스트 중 '무주(無住)'라는 단어를 클릭하자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뒤따랐다.

각종 불교관련 자료들을 인터넷으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http://buddha.dongguk.edu)을 가동한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전담하는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인 '불교문화종합DB'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국가지식정보자원인 <한국불교전서> <한글대장

경> 및 불교사전 등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전서>는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불교계 고승과 명현들의 문헌을 집대성한 것이다. 특히 일부자료는 국보 또는 귀중본 등으로 지정된 자료로서, 그간 연구자 및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합천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을 번역한 한글판 대장경인 <한글대장경> 외에도 불교용어·인명·사찰명 등 2만여 건의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불교사전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이용의 편리성이다.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를 열어주며 텍스트 가로보기, 세로보기, 화면모기, 두면보기, 텍스트·이미지 비교보기를 제공한다. 또한 본문 내용 중 모르는 한자가 있을 경우 한자의 뜻과 음 및 영어까지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어로 번역돼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측은 "내년에는 불교관련 관화서비스, 불교관련 학위논문서비스, 학술지 기사색인 서비스, 단행본 목록서비스 등 불교관련 자료를 총망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송실중 교사 종교 강요 거부 선언

허형범 교사 시교육청에 '시정명령 청구서' 제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뜻밖의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학교재단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것을 지시 받아온 현직 교사가 '종교 강요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기독교재단인 서울 은평구 소재 송실중학교에서 23년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허형범 교사는 12월 19일 '헌법상의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감에게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허 교사는 "학교재단은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종교 강요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교단에 서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양심을 어겨가며 학생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허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시정명령 청구서에는 종교 강요행위의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송실중학교 담임교사들은 학생 조회와 종례 때 '경건회'라는 이름으로 성경구절 강독, 찬송, 기도 모임을 하는 악습 예례를 진행해야 한다. 또 종교과목 평가시 종교기관 탐방을 의무화해 1년에 30여차례에 걸쳐 특정종교시설을 가도록 하고 있으며, 종교 과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우수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는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집중 훈련과정을 실시, 이른바 '성령'을 체험하는 과도한 기도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

허 교사는 "지난해 학교 경영평가 간담회에서 교장에게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강한 질책을 받았다"며 "감독기관인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은 "종교재단의 선교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종교강요행의 근절을 위한 처벌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박병영 기자

불교뉴라이트연합 창립

불교뉴라이트연합(상임공동대표 장산)이 12월 18일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뉴라이트연합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우파정권 창출 △좌향적 기운의 거세 △새로운 시대 정신 창출 등을 당면 목표로 삼았다. 상임공동대표 장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교뉴라이트운동을 우리의 권익과 위상을 드높이는 호국호법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영 기자



한마음선원 소년소녀돕기 송년의 밤 성황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해원)이 소년소녀 가장 돕기 송년의 밤 '푸르게 살라!'를 마련했다(사진).

12월 23일 안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행사는 본연의 속속 모든 신원들이 한 자리에서 처음 갖는 송년행사였다.

1부는 신도들이 직접 만든 연극으로 장식했다. 음악이 있는 연극 '마

음 너머 마음으로'는 신행생활에 대한 세 부부의 답사 사이사이에 노래와 춤이 곁들여져 재미를 더했다.

2부는 어린이합창단, 학생회, 혼성합창단, 청년합창단 등이 노래와 율동을 선보였다. 특히 청년합창단의 무대는 첫 선을 보이는 밴드와 화려한 탭댄스 등으로 객석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강지연 기자

간화선입문프로그램

3기 1월 24일부터 10주간

'간화선입문프로그램-화두 참선'으로의 초대 3기 과정이 2007년 1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10주간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이 재가자들이 대상으로 진행되는 간화선입문프로그램은, 참선을 배우고 싶은 누구에게나 기초부터 참선까지 쉽

게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우 스님(명화 금방암 선덕)을 증명법사로, 원월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을 지도법사로 진행되는 간화선입문프로그램은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과 변희욱 박사가 지도사로 나선다.

입제는 1월 24일 오후 7시 조계사 극락전에서 열리며 42명 선착순으로 접수(02-735-2428)받는다. 회비는 20만원. 80% 이상 출석자에게는 신행증(수료증)을 발급한다.

남동우 기자

진정한 한사스님처럼 기초와 범패소리를 잘 닦아 주는 교육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7년 제9기 추가통신생 모집

-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기초철학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겹채비 : 바라춤, 도량계작법, 다계작법(나비춤), 사물 다루는법, 화청(회심곡), 지옥개춤
- ◆ 과 정 : 2년(4학기) ◆ 수 강 료 : 1학기 6개월 70만원(각 학기당 동일) (비디오 교재 별도)
 - ※ 비디오, 테이프, 46가지 DVD까지, 비치됨. 교재는 학교에 비치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 입 학 식 : 2007년 3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일 둘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까지
- ◆ 상차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 전화번호 : 062)362-8604 / 011-624-8604 / Fax 062)372-8604
-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우 502-242)
- ◆ 학 장 :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평가자)

한국불교의식대학 범패교육기간

2006년 12월 28일 - 12월 31일 : 3박 4일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 (오전시간 강의, 오후시간 실기교육 위주)
 - 12월 28일 오후 2시 : 입학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옥 보소정전연, 화청(회심곡), 원야계교육
 -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 12월 29일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깃소리 녹음), 화청(회심곡), 낙성식하는 법, 범종불사 의식하는 법
 - 12월 30일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청(회심곡), 상축하는 법, 창흔의식 하는법, 부도 재막식 하는법, 삼재기도 하는법.
 - 12월 31일 : 정월융왕불공 및 방생의식 법,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령만 종사관옥, 큰불사시 관음에문하는 법.
- 준비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녹음기 ● 숙식제공포함 교육비 : 40만원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습니다.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 1.대령/관옥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옥 20.종사령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정계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계) 30.작법무(육권만다라선송대계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옥(간단한 관옥)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 2권 100,000원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현숙)]

◆제품구입처 : 중무소 062)362-8604 /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